

# 『금강심론(金剛心論)』에 드러난 선오후수의 돈점론\*

범상(정광균)\*\*

## • 목 차 •

### I. 서론

### II. 『금강심론』에 드러난 선오후수의 수증론

1. 주객상응(主客相應)의 대기설법(對機說法)
2. 『금강심론』의 수증계차(修證階次)
3. 『금강심론』의 선오후수(先悟後修)
4. 『금강심론』의 돈오점수(頓悟漸修)

### III. 결론

---

\* 본 논문은 청화사상연구회에서 발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

\*\* 중앙승가대학교 외래교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 『大覺思想』 제32집 (2019년 12월), pp.331-366.

## 한글요약

한국불교를 회통불교라고 말할 때에 과연 교학과 실증수행에 있어서도 그러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정통과 전통에 입각한 수행체계에 천착한 두 분의 선각자가 바로 금타(1898~1948)와 청화(1924~2003)이다. 이 두 분이 제시하고 명시한 수증체계는 수행자라면 반듯이 주목하고 제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수행체계이다. 불교의 수증은 바로 수행자가 실천하여 체증할 최대의 과제로 수행자에겐 최상의 가치를 수반한다. 때문에 근기론과 수증론은 수행자라면 누구나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할 내용이면서 체현할 목적이다.

본고는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근기론에 대해서 주객상응하는 대기설법을 소재로 삼아 사실단을 비롯하여 삼정취와 오성각별, 사료간과 사빈주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강심론』에서 제시한 경론의 수행계차인 해탈십육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에 『금강심론』에서 말하는 선오후수(先悟後修)를 검토하면서 『정통불법의 요체』에 명시된 돈오점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끝으로 『금강심론』에서 명시한 돈오점수에 대해서 고찰함에 『원통불법의 요체』와 『실상염불선』을 통해서 논제에 부합한 내용을 연계시켜 간초(簡超)하여 돈오점수하기도 하고 돈초(頓超)하여 돈오돈수하기도 하는 조사선법을 검토하였다.

## 주제어

금강심론, 벽산금타, 무주청화, 근기론, 수증론, 해탈십육지, 선오후수, 돈오점수

## I. 서론

우리 인류가 인간 본성을 체득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묘사한 관점을 수행문화라고 말한다. 수행문화는 인간의 정신현상과 사물자체를 조화롭게 이해하고 자각하여 현실에 운용하는 삶이다. 이 중에 불교적 정신문화는 인간 삶의 과정을 보다 안심하고 안정되게 추구하여 가장 행복하게 삶을 누리다가 종국에 몸으로 입증하고 마음으로 깨달아[身證心悟] 평안한 열반을 향유하게 한다. 그 가운데 인간의 수행론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돈점(頓漸)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개인 각자의 성향과 육구와 역량에 따라 근기에 상응하는 수증의 이론이다.

붓다는 인간에게 내재한 모든 오염을 제거하여 해탈하고, 인간의 본질이 본래 자신과 다름이 없다는 믿음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개체의 성향에 알맞은 이론을 동반하여 전개하고 닦아 증득할 수증의 이론을 다양하게 피력하였다. 또한 붓다 이후 대기대용(大機大用)의 선각자들은 바로 단박에 깨닫는 돈오(頓悟)를 낳았고, 점차로 역량에 맞게 습기를 제거해 나아가는 점수(漸修)도 발현하였다. 이에 덧붙여 깨달음을 단박에 체득하는 돈수(頓修)로 표현하기도 하고, 점차로 닦아 체득하는 과정의 점수(漸修)의 이론도 간과하지 않았다. 이는 인간 능력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평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단박과 점차로 체현하려는 수행과정을 피력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 삶의 방식이 인도에서는 근본불교로부터 후기대승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경전과 논서들에서 발원하였다. 그리고 고대 중국과 한국에 전승된 수행문화를 정립하여 전문적인 수행자들과 일반불자에게 어필되어 왔다. 그래서 고대 중국과 한국의 선각자들이 자기의 역량에 부합하는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연구하고 실천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언급한 분들 중에 고대 중국과 한국에서 선별하면 도생(道生)의 돈오(頓悟)설과 혜관(慧觀)의 점오(漸悟)설을 비롯하여 대감혜능(638~713)과 하택신회(684~758)의 돈오돈수(頓悟頓修)설과 더불어 청량

징관(738~839)의 영향을 받은 규봉종밀(780~841)과 영명연수(904~975)는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연구하여 실천한 조사들이었다.

또한 고대 한국에도 신라의 정중무상을 비롯하여 9산선문의 조사들, 고려 중기 보조지눌(1158~1210)과 고려 말 삼사(三師)인 태고보우(1301~1382)·나옹혜근(1320~1376)·백운경한(1299~1374)을 거쳐서 조선 초기에 다섯 분의 조사를 거쳐서 조선중기의 부용영관(1485~1571)과 청허휴정(1520~1604)에 이르렀다. 이후 휴정의 법을 계승한 편양언기(1581~1644)와 환성지안(1664~1729)으로 전승되어졌다. 이러한 법계는 조선후기에 설과상언(1707~1791)과 백과공선(1767~1852) 등에게 차례로 돈오점수의 심인(心印)이 계승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근본불교와 초기불교로부터 후기대승밀교, 한국과 중국의 토착불교와 조사선법에 이르기까지 정통수행법에 대해서 교학의 회통과 원용한 수행을 총합한 수행체계는 아직 정립시키지 못하였다.

하지만 조선 말기와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정통과 전통에 입각한 수행 체계에 천착한 두 분의 선각자가 바로 벽산금타(1898~1948)와 무주청화(1924~2003)다. 이 두 분이 제시하고 명시한 수증체계는 반듯이 주목하고 제고(提高)할 가치가 인정되는 수행체계다. 이는 한국불교를 회통불교라고 말할 때에 과연 교학과 실증수행에 있어서도 그러하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수증이론에 입각한 깨달아서 해탈하고 열반하는 내용이 과정인가? 아니면 궁극적 결과인가? 수행자라면 반드시 주목하고 이해하여 실천할 부분이다.

따라서 청화사상연구회에서, “선오후수(先悟後修)와 수증론(修證論) 체계 고찰”을 주제로 삼아 발표회를 갖는다. 그리고 본 논문은 “『금강심론』에 드러난 돈오후수와 돈점론”이란 소주제를 부여받아 연구에 임하였다. 불교의 수증은 바로 수행자가 실천하여 체증할 최대의 목표로 수행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수반한다. 때문에 근기론을 수반한 수증론은 불자

라면 누구나 명기불망(明記不忘)할 내용이면서 체현할 과제다. 청화가 언급하였듯이 수증의 계차도 모르고 암중모색하거나 일부의 문자에 집착하여 깨달음이란 그런 것이라고 어림짐작하거나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증상만을 일으키는 자의 경계를 극복하는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상의 논제에 관해서,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근기론에 대해서 주객상응(主客相應)의 대기설법(對機說法)을 소재로 삼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다음에 『금강심론』<sup>1)</sup>에서 제시한 경론의 수행계차를 검토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금강심론』에서 말하는 수증론의 선오후수(先悟後修; 頓悟漸修)를 검토하면서 『정통불법의 요체』에 명시된 돈점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금강심론』에서 명시한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해서 고찰함에 『원통불법의 요체』와 『실상염불선』<sup>2)</sup>을 통해서 논제에 부합한 내용을 연계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논제에 필요한 부분은 신수대장경이나 고대 인도를 비롯하여 중국과 한국에서 논의된 전거들을 검토하여 금타와 청화가 명시한 선오후수(先悟後修)에 대한 정통성과 전통성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청화의 설법집인 『원통불법의 요체』와 『실상염불선』은 『금강심론』의 주석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 1) 벽산 遺稿를 모아 청화선사가 4편으로 편집하였고, 空閑山人이 『碧山禪要』 上·下卷, 能顯禪院, 1993으로 편집하여 약간의 주해를 덧붙였으며, 배광식이 『금강심론 주해』 I · II, 뜨란, 2017·2018에서 그 일부인 「一人傳에 一人度」와 「解脫十六地」·「수릉엄삼매도결 상편」을 주해하였다.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의 구성은 청화의 머리말을 비롯하여 총4편 23장으로 구성되었다.
  - 2) 청화대종사,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9와 『실상염불선』은 벽산대화상의 유고를 정리한 『金剛心論』을 바탕으로 불교의 모든 교상을 회통하여 설법하고 입증한 청화선사의 중심사상과 원융한 수행체계를 주석한 것이다. 『원통불법의 요체』는 동리산 태안사에서 해제 중에 7일간의 특별법문을 녹취한 것을 문자화한 것으로 안심법문을 필두로 총7장 26절로 구성되었다.

## II. 『금강심론』에 드러난 선오후수의 수증론

### 1. 주객상응(主客相應)의 대기설법(對機說法)

붓다는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대기설법의 방편을 일대기에 걸쳐서 설하였다. 이를 본받아 논사들도 역시 다종다양하게 설파하였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사람들에게 각기 갖추어진 재능과 기량이 다종다양하다고 회자된다. 이것이 이른바 불교를 교학의 이론과 수행의 실증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이론적인 깨침은 해오(解悟)에 해당하고, 체험적인 실증은 증오(證悟)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붓다의 교설이 다종다양한 것을 일명 8만4천의 대장경으로 명시하였다. 이것을 간략하게 분류하면 사실단(四悉檀<sup>3)</sup>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진리의 체득을 표출하는 기준에서 이제(二諦)와 삼제(三諦)로 드러낸다. 나아가 이에 대해서 이해의 수준이나 체험의 간극 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근기<sup>4)</sup>의 이론이 제기된다. 여기에 탁월한 역량의 특수한 정도에 맞추는 최상근기의 상사(上士)인 수법행(隨法行)이다. 보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3) 悉檀은 범어로 *siddhanta*이고, 팔리어로 *siddhattha*이며, 간략히 四悉이라고 말한다. 실단이란 *Sidh*를 어근으로 하는 *sidhyati*의 과거분사형 *siddha*와 *anta*가 합성하여 만들어진 남성명사로서 그 의미가 다양하다. 의역하여 성취·근본[宗]·이치[理] 등으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여 인도하는 교법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즉, 세속적인 바램에 맞는 법을 설법하여 범부(凡夫)를 기쁘게 하면서 세간의 밝은 지혜를 얻게 하는 世界悉檀인 樂欲悉檀, 중생 각각의 성질과 능력에 따라 그에 적합한 出世間的인 실천을 가르치는 各各爲人悉檀인 生善悉檀, 중생의 번뇌와 악업을 깨우쳐서 이를 없애게 하는 對治悉檀인 斷惡悉斷, 궁극적 진리를 직접 가르쳐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第一義悉檀인 入理悉檀 등이다. 즉, 인정된 정설, 견해, 원리, 기준, 공리 등등의 뜻을 가진다.

4) 根機는 사람이 가진 종교적인 소질이나 능력을 뜻하는 말로 근(根)은 물건의 근본이 되는 힘이고, 機는 발동한다는 뜻이다. 근기는 사람마다 타고난 정도가 다르므로 근기가 높은 사람은 교법을 받는 성능이 뛰어나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닦아 깨침에 이르는 중생의 근본적인 능력이다. 김시열의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도서출판 운주사, 2014, pp.70-72)를 참조하면 근기와 관련한 사마타와 위빠사나 각각의 수행을 통한 해탈과 지관쌍수를 논하였다.

역량을 소유한 중간의 중사(中士), 최하의 근기인 하사(下士)까지 적용 가능한 방편의 수신행(隨信行)을 제시한다. 이른바 『기신론』과 『무량수경』은 삼취(三聚)<sup>5)</sup>로, 법상종은 오성각별(五性各別)로 표출하였다.

붓다로부터 발원한 불교의 역사는 어쩌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무명(無明)에서 비롯된다고 붓다는 설파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벗어남은 인간 마음의 본질을 이해한 신뢰를 바탕으로 본래 마음의 어둠이 없다는 것을 밝혀 열반의 평화에 안주하는 한마음의 작용을 자각하고 체득하는 과정이다. 만약 인간이 본래 청정한 마음에 안주한 믿음이 완전무결하다면 깨달은 해탈열반도 완전해진다. 하지만 만약 사람에게 본래 없는 일념의 무명번뇌가 많아져서 불안하게 된다면 어두운 생활로 그만큼 삶도 고달파질 것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물이 맑아지면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흙탕물이 많아지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대승기신론』<sup>6)</sup>을 참고하면 그것은 바로 법성진여를 동반한 삼보(三寶)와 삼보를 관통하고 있는 진여(眞如)의 당체인 중생심이자 대승의 마음이다. 중생심의 당체는

5) 康僧鎧 譯, 『佛說無量壽經』 卷上(大正藏12, p.72, 중), “佛告阿難。其有衆生住彼國者, 皆悉住於正定之聚。所以者何? 彼佛國中無諸邪聚及不定之聚, 十方恒沙諸佛如來皆共讚歎無量壽佛威神功德不可思議。諸有衆生聞其名號信心歡喜, 乃至一念, 至心迴向願生彼國, 卽得往生住不退轉, 唯除五逆、誹謗正法”

6) 馬鳴菩薩 造·眞諦 譯『大乘起信論』(大正藏32, pp.576, 상-576, 중), “心生滅者, 依如來藏故有生滅心, 所謂不生不滅與生滅和合, 非一非異, 名爲阿梨耶識。此識有二種義, 能攝一切法、生一切法。云何爲二? 一者 覺義, 二者不覺義。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離念相者, 等虛空界無所不遍, 法界一相卽是如來平等法身, 依此法身說名本覺。何以故? 本覺義者, 對始覺義說, 以始覺者卽同本覺。始覺義者, 依本覺故而有不覺, 依不覺故說有始覺。又以覺心源故名究竟覺, 不覺心源故非究竟覺。此義云何? 如凡夫人覺知前念起惡故, 能止後念令其不起, 雖復名覺, 卽是不覺故。如二乘觀智, 初發意菩薩等, 覺於念異, 念無異相, 以捨離分別執著相故, 名相似覺; 如法身菩薩等, 覺於念住, 念無住相, 以離分別離念相故, 名隨分覺; 如菩薩地盡, 滿足方便一念相應, 覺心初起心無初相, 以遠離微細念故得見心性, 心卽常住, 名究竟覺”

당연히 일심(一心)의 근원이 본래 청정한 본각(本覺)의 범성진여이다. 그러나 일념의 불각(不覺)이 홀연히 발동하였다가 시각(始覺)의 상사각(相似覺)과 수분각(隨分覺)을 거쳐서 구경각(究竟覺)에서 본각을 체증하여 삼신불(三身佛)로 작용하는 인원과만(因圓果滿)의 체득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완성하는 도구로 초기불교에서 후기밀교에 이르기까지 삼학(三學)의 내용으로 팔정도(八正道)란 수행의 길과 사제(四諦)를 체득한 무루(10지)를 이루어 해탈열반을 성취한다. 나아가 깨달음과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37도조의 수행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를 계승한 대승 불교는 사무량심과 사섭법, 그리고 십바라밀을 통해 삼아승기삼대접을 소요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수행의 기간을 제시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에 불교의 교상을 깊게 연구한 과정을 통해서 돈오(頓悟)와 점오(漸悟)의 이론을 피력함과 동시에 근기의 이론을 수반한 수행과정에 대해서도 돈수(頓修)와 점수(漸修)의 이론도 확립한다. 나아가 교상판석(敎相判釋)을 통해서 시기와 근기에 상응[時機相應]하는 교상을 관별하고 해석하여 돈점(頓漸)의 교설과 더불어 선가의 근기론도 여실하게 드러내었다. 즉 남북조시대와 수당을 거치면서 교상의 이론적 바탕아래 당 중기로부터 오대에 본래성불을 바탕으로 체증하는 조사선을 창안하여 실용적으로 추구하였다.<sup>8)</sup>

중국에서 천태조사와 선종의 조사들은 본래성불의 입장에서 제자의 지도법으로 오시팔교와 사빈주(四賓主)와 사료간(四料揀)을 통해서 주객이 상응하는 수기설법(隨機說法)을 삶의 현장에서 홀연히 축착합착(築着磕着; 대쪽 맞듯 맷돌 맞듯)하게 줄탁동시(啐啄同時)하였다. 이러한 조사선법을 이어받은 한국불교는 고려의 보조지눌로부터 조선 중기에 이르러 휴정에 의해서 삼문수업(三門修業)<sup>9)</sup>이 확립되어 조선후기 선가의 수행방

7) 四諦를 수행하여 체득한 世俗智와 法智, 類智, 苦智, 集智, 滅智, 道智, 他心智, 盡智, 無生智 등.

8) 김호귀, 「선종의 깨달음과 그 유형」,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도서출판 운주사, 2014, pp.95-159에서 논한 조사선의 정립과정 참조.



침을 『선가귀감』에 종합하여 내놓았다. 그 내용 중에,

사람을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은 하근기에 대해서이고, 경계를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은 중근기에 대해서이며,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 것은 상근기에 대해서 이고,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은 격(格)을 벗어난 이에 대해서다.<sup>10)</sup>

라고 하였다. 요간(料揀)이란 대상에 대해서 잘 헤아려 중요한 요점을 분간해 내는 것이다. 이는 시비(是非)와 호오(好惡)·선악(善惡) 등을 가려 내어 분별하는 마음을 단번에 잘라내어 제거해준다는 전통적인 지도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임제의현(臨濟義玄, ?~867)이 「사료간(四料揀)」에서 주관인 사람[人]과 대상인 경계[境]에 대하여 빼앗지 않는 긍정[不奪]과 빼앗는 부정[奪]의 방식에 따라 네 가지 핵심이 되는 형식을 간략하게 추출해 내었다. 종사는 상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네 가지 중 하나를 구사하면서 지도하는 전통적인 깨침으로 유도하는 수단을 삼은 것이다. 또 『육조단경』의 제접(提接)<sup>11)</sup>법을 이어받은 『임제어록(臨濟語錄)』에서,

그때 학인이 묻길, ‘사람을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 이르시길, ‘봄날 만물이 움트니 비단을 땅에 펼친 듯하고 어린아

9) 休靜은 선가의 임제가품을 주장하면서도 看經을 중요시하고 염불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였다. 이리하여 승가에서는 禪만도 아니고 教만도 아닌 禪修와 講學이 함께 하고, 또 염불도 함께 닦았기 때문에 삼문수업(三門修業)의 가풍이었다. 이러한 삼문수업의 대표적인 지침서로서 振虛捌關의 三門直指가 있다. 삼문직지에는 정도염불수행의 念佛門과 화엄교학의 圓頓門, 선지참구의 徑截門의 세 가지 수행문이다.

10) 淸虛休靜 撰, 『禪家龜鑑』(韓佛傳 7, p.645, 상-중), “奪人不奪境, 待下根; 奪境不奪人, 待中根; 人境兩俱奪, 待上根; 人境俱不奪, 待出格人.”

11) 청화 역주, 『육조단경』 「촉루품」, 광륜출판사, 2008, pp.240-250에서 자성(自性)에 맞닿은 동용(動用)의 36대(對)를 가지고 후학을 이끌어 지도하라고 제시하였다.

이가 머리칼을 드리우니 명주실같이 빛이 번득인다.’

학인이 묻길, ‘경계를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 이르시길, ‘왕의 명령이 이미 시행되어 천하에 골고루 펼쳐지고, 장군은 국경에서 전란에 휘말릴 일이 전혀 없다.’

학인이 묻길,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 이르시길, ‘병주와 분주는 서로 소식을 끊고 각각 한 지방을 차지 하였다.’

학인이 묻길,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 이르시길, ‘왕은 보배궁전에 오르고, 촌로는 태평가를 부른다.’<sup>12)</sup>

라고 연기적 관점에서 진리는 하나이지만 사람의 소질과 역량, 욕구에 따라 대처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또 임제(臨濟)의 사빈주(四賓主)는 첫째로 손님이 주인을 간파한다는 객간주(客看主)이다. 학인이 스승의 마음을 간파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빈중주(賓中主)와 상통한다. 둘째는 손님이 손님을 간파한다는 객간객(客看客)은 학인이나 스승 모두 견성(見性)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빈중빈(賓中賓)과 상통한다. 셋째로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는 주간객(主看客)은 주중빈(主中賓)과 상통한다. 넷째로 주인과 손님이 모두 대등한 선기(禪機)의 정안(正眼)을 갖추고 있다는 주간주(主看主)는 주중주(主中主)와 상통하는 것이다. 대상을 깨우쳐주기 위해 덧붙인 시비분별을 제거하는 설명에서,

도를 깨친 진정한 학인이 고향(喝)을 내지르면서 끈적끈적한 아교단지 같은 말을 한마디 하면 선지식은 이것이 경계인 줄 모르고 그 경계 위에서 갖가지 분별의 틀을 조작한다. 학인이 고향(喝)을 내지르면 앞의 선지식은 이 경계를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질병으로 의사도 감내하지 못한다.

12) 『臨濟語錄』(大正藏47, p.497, 상). 時有僧問, ‘如何是奪人不奪境?’ 師云, ‘煦日發生鋪地錦, 嬰孩垂髮白如絲.’ 僧云, ‘如何是奪境不奪人?’ 師云, ‘王令已行天下遍, 將軍塞外絕烟塵.’ 僧云, ‘如何是人境兩俱奪?’ 師云, ‘并汾絕信, 獨處一方.’ 僧云, ‘如何是人境俱不奪?’ 師云, ‘王登寶殿, 野老謳歌.’

이것을 ‘손님이 주인을 간파’한다고 한다. 혹은 선지식이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다가 학인이 질문하려고 한 것을 곧장 빼앗아버리면, 학인은 빼앗기고는 필사적으로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한다. 혹은 학인이 청정한 경계를 한 가지 가지고 선지식 앞에 나타나면, 선지식은 그 경계를 분별해 내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로 던져버린다. 그러면 그 학인은 ‘대단하신 선지식입니다.’라고 함에, 선지식은 곧바로 ‘아, 좋은 것과 나쁜 것도 구별할 줄 모르는 놈이로다.’라고 함에, 학인은 곧장 절을 올린다. 이것을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고 한다. 어떤 학인이 얽매이고 집착된 상태로 선지식 앞에 나타나면 선지식은 거기다 족쇄(그릇된 지식)를 한 겹 덧붙이는데 학인은 기뻐한다. 학인과 스승이 피차 분별하지 못하므로 이것을 일러 ‘손님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한다.<sup>13)</sup>

라는 사빈주의 자세한 설명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근기와 성향 그리고 의욕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 내는 전통적 지도법을 짐작해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단(四悉檀)에 입각해서 광장설상으로 연기적 상호관계를 설하셨다. 그리고 모든 논사들은 각각의 경전과 논서들에서 수법행(隨法行)과 수신행(隨信行)에 입각해서 다양한 수행방법들을 창안하였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천태가와 선가에서는 오시팔교와 사빈주나 사료간으로 설정하여 주객의 연기적 작용으로 상응시켜 학인을 이끌어 지도한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의 시공간적 관점과 간극은 사람의 근기와 성향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수행체계를 종합하고 관계시켜서 회통한 분은 없었다. 그런데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금타와 청화가 비로소 수행체계를 종합하면서 제교의 수행을 회통하여 제시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함과 아울러 선오후수(先悟後修)

13) 『臨濟語錄』(大正藏47, 501상), “如有真正學人, 便喝先, 拈出一箇膠盆子, 善知識, 不辨是境, 便上他境上, 作模作樣. 學人便喝, 前人不肯放. 此是膏肓之病, 不堪醫. 喚作客看主. 或是善知識, 不拈出物, 隨學人問處即奪. 學人被奪抵死不放. 此是主看客. 或有學人, 應一箇清淨境, 出善知識前, 善知識辨得是境, 把得拋向坑裏. 學人言, ‘大好善知識.’ 卽云, ‘咄哉, 不識好惡.’ 學人便禮拜. 此喚作主看主. 或有學人, 披枷帶鎖, 出善知識前, 善知識, 更與安一重枷鎖, 學人歡喜. 彼此不辨, 呼爲客看客.”

를 구명해보기로 한다.

## 2. 『금강심론』의 수행계차(修行階次)

불교의 수행은 어쩌면 근본번뇌가 없는 하나의 믿음을 다독이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본불교에서 붓다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대 노력하였고, 화엄에서도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논해지는 내용도 불각(不覺)의 무명상태에서 ‘하나의 청정한 마음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시기와 자질에 부합한[時機相應] 단박[頓]에 또는 점차[漸]로 이해[解悟]하고 증오[證悟]하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함경』에서는 석존과 오분법신향(五分法身香)을 비롯하여 사쌍팔배의 사향사과의 체득을 설하였다. 나아가 초기대승의 여러 경전에 공통의 십지(十地), 부파의 『구사론』과 유식의 『유식론』은 오위(五位)의 수행체계, 후기대승밀교의 경론에는 삼밀가지의 오상성신 등의 각종 수행체계로 재정리하였다. 이에 대해 금타가 종합하여 배대시킨 것에 대해서 청화는 「일러두기」 제2편 「해탈십육지」에 대해서,

불조(佛祖)의 경론에서 밝힌 성불의 단계를 보살십지(菩薩十地)를 근간으로 하여 대비시켜 회통한 수행과정의 체계로서, 무릇 수행의 방법계제(方法階梯)도 모르고 암중모색하는 암증선이나, 또는 실수(實修)를 소홀히 하고 경론의 문자만을 섭렵하여 깨달아 얻은 문자선이나, 혹은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한 것으로 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음으로 여기는 야호선(野狐禪)의 증상만 등을 물리치고, 스스로 법사가 되어 구경을 성취할 수 있는 현대과학시대의 시기에 적용한 돈오점수(頓悟漸修)의 교설이다.<sup>14)</sup>

라고 구명하였다. 그래서 금타는 해탈십육지(解脫十六地)를 제시함에 보

14)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27 참조.

살십지(菩薩十地)를 근간으로 사가행도와 이승십지(二乘十地), 유가십칠지(瑜伽十七地), 오인(五忍)의 십삼관문(十三觀門), 오상성신위(五相成身位)<sup>15)</sup>, 밀교십지 등을 안배시켜 원융하게 현밀(顯密)을 회통(會通)한다. 이러한 수행체계는 벽산의 독자적인 신해행증(信解行證)의 16가지 해탈지이다. 즉, 금타는 그만의 독특한 수행체계를 보살십지와 유가십칠지에 의거해서 삼현십성(三賢十聖)을 논한다.

다시 말해서 금타는 먼저 7종의 삼보를 밝혀 귀의하길 명시한 계위는 처음 삼귀지(三歸地)와 제2의 신원지(信願地)로 믿음과 원력이 상응한 신앙을 고취한 십신(十信)에 해당시킨다. 다음 제3의 습인지(習忍地)는 십주(十住)이고, 제4의 가행지(加行地)는 십행(十行)이며, 제5의 금강지(金剛地)는 십회향(十廻向)에 배당한다. 그리고 제6의 환희지(歡喜地)와 제7의 이구지(離垢地), 제8의 발광지(發光地), 제9의 정진지(精進地), 제10 선정지(禪定地), 제11의 현전지(現前地), 제12의 나한지(羅漢地), 제13의 지불지(支佛地), 제14의 보살지(菩薩地), 제15의 유여지(有餘地)까지 수행은 십지(十地)에 배당시켰다. 제16의 무여지(無餘地)는 불지(佛智)인 등각(等覺)과 묘각(妙覺)에 배당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금타는, “필자는 55위설과 삼현육성설(三賢六聖說)을 지지하는 동시에 55위를 점차 차례로 점수하는 설을 타파하고 안으로 50위에서 오위(五位)를 십중(十重)과 십위(十位)의 오중(五重)을 중횡으로 관찰하여 오온개공(五蘊皆空)을 증득하는 경지로서 곧 오지여래(五智如來)를 성취하는 방편이라.”<sup>16)</sup> 논하였다. 다음에 해탈십육지란 보살십지를 근간으로 성문10지, 연각10지, 삼승10지, 밀교10지, 유가17지, 신(信)·주(住)·행(行)·회향(廻向)·지(地) 등 5가지 각각의 십위(十位), 오상성신위(五相成身位), 오인(五忍)의 십삼관문(十三觀門), 사가행도 등을 지엽으로 하여 현밀(顯密)을 회통한다. 수행자는 처음 삼귀지에서 신앙심을 고취하고 나

15) 釋金陀 著·清華,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p.74-76 참조.

16) 釋金陀 著·清華,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150 참조.

아가 제16지의 무여지를 발생시켜 궁극을 성취함에 바로 십육생성불설(十六生成佛說)에 계합하라.”<sup>17)</sup>고 역설하였다. 이상을 간략히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금강심론』의 제2편 해탈십육지(解脫十六地)의 구성내용<sup>18)</sup>

해탈십육지(解脫十六地)	
1. 三歸地	七種三寶를 소승과 대승으로 구분하고, 입도방편(入道方便)의 계를 간략히 설함.
2. 信願地	迷信과 正信을 판별하고, 바른 믿음의 願을 밝혔으며, 四種四諦의 藏通別圓을 밝힘.
3. 習忍地	五忍을 분석하고, 성문과 연각의 이승 및 隨機應量한 修習安忍의 체득을 밝힘.
4. 加行地	三密을 수행하여 五相成身位와 유식의 四得定の 체득을 三乘共十地에 배대함.
5. 金剛地	근본불교의 계위 사쌍팔배(四雙八輩), 밀교의 계위와 오안(五眼)을 배대(輩對)시키면서 금강살타(金剛薩埵)에 대해서 밝힘.
6. 喜樂地	초지(初地)를 선정수행의 계위인 삼계구지(三界九地)를 사쌍팔배(四雙八輩)와 삼승공십지에 배대함.
7. 離垢地	離喜妙樂에서 捨念清淨, 성문의 不還果, 삼승공십지인 離欲地를 밝힘.
8. 發光地	滅受想定을 음미하는 發光地를 배대시킴
9. 精進地	보살의 십지와 十波羅密, 十眞如의 증득 및 解脫十六地와 보살십지, 瑜伽十七地와 관련해서 대조하여 정진수행을 권장함.
10. 禪定地	보살승의 難勝智
11. 現前地	보살승의 現前地
12. 羅漢地	성문 아라한과, 연각 徹和密地, 보살 遠行地, 삼승공십지인 已辨地에 해당시킴.
13. 支佛地	연각 習氣漸薄地, 삼승공십지인 벽지불지, 보살의 不動地에

17) 釋金陀 著·清華,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p.139-142 참조.

18) 釋金陀 著·清華,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p.132-152 참조.

	배대시킴
14. 菩薩地	보살의 善慧地, 삼승공십지의 보살지에 배대시킴
15. 有餘地	유가십칠지 중 有餘依地, 보살계위의 法雲地, 삼승공십지의 菩薩地, 因位の 等覺位를 배대시켜 밝힘.
16. 무여지 (無餘地)	유가십칠지 중 無餘依地, 삼승공십지의 佛智인 妙覺, 四覺 중 究竟覺을 제16지에 안배함과 五忍을 16지에 배치시켜 모든 수행의 계위를 집목시킴. 또한 空性相 三宗을 五忍의 十三觀門에 안배하고, 각종 계위를 모두 五陰과 十地·五相成身位를 배대시킴.

여기서 주목되는 계위에 대해서 제1의 삼귀지(三歸地)는 수행자가 신앙이 없는 단점을 보완해서 확실한 자기의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준다. 제2의 신원지(信願地)는 미신(迷信)이 아닌 정신(正信)으로 절실한 발원을 제시하고, 제3지인 습인지(習忍地)에서는 자기의 역량과 소질을 가늠하도록 계도하였다. 다음에 제6의 희락지(喜樂地)는 구차제정의 선정의 단계에 근경식(根境識)을 안배시켜서 삼계를 초월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환희지(歡喜地)를 희락지(喜樂地)<sup>19)</sup>로 대체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전통적으로 말하는 견도(見道)나 견성(見性) 또는 견불(見佛)에 해당하는 선오(先悟)인 돈오(頓悟)이다.

그런 다음에 제7의 이구지(離垢地)로부터 제9의 정진지(精進地)에 이르러서 보살이 실천할 십바라밀(十波羅密)과 체득할 십진여(十眞如)의 법상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제교에서 논하는 수행단계를 총괄하여 언급한다. 그러고 나서 제15의 유여지(有餘地)에서는 유가와 보살의 법운지와 등각의 계위를 설정하여 마음의 미세한 번뇌를 벗어난 안심(安心)의 유여열반을 설정하였다. 마침내 제16지인 무여지(無餘地)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수행계위를 총괄하여 정리하면서 공(空)·성(性)·상(相)의 종파를 오인(五忍)의 십삼관문(十三觀門)<sup>20)</sup>에 안배하고, 간략히 오음(五陰)과 십지(十

19)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p.151-152 참조.

20) 鳩摩羅什 譯,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大正藏8, pp.826, 중-826, 하) "大王! 五忍是菩薩法: 伏忍上中下、信忍上中下、順忍上中下、無生忍上中下、寂滅忍上中下, 名

地)를 배치시켜 구경각의 무여열반을 체득하는 후수(後修)인 점수(漸修)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에 십육생성불설(十六生成佛說)에 대해서이다. 이는 근기를 이둔(利鈍)과 점돈(頓漸), 대소(大小) 등의 2기(機)로 구분하고서 이기와 둔기와 대기는 일생이나 이생에 즉신성불(卽身成佛)하고, 둔기와 점기와 소기는 삼아승기십대겁의 16생을 거쳐 성불한다고 논한 것을 간략히 언급한 것이다.<sup>21)</sup>

이에 대해서 청화는 『원통불법의 요체』<sup>22)</sup>과 『실상염불선』<sup>23)</sup>의 법어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최상의 올바른 완전하게 깨달은 열반의 경지는 당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수후오(先修後悟)하였다. 하지만 석존 이후에는 부처님의 올바른 지도로 말미암아 선오후수(先悟後修)한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입장을 견지하였다고 역설하였다. 왜냐하면 금타는 무(無)자 화두로 18년을 수행하였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손수 저작한 「보리방편문」의 법신과 보신, 화신의 삼신일체(三身一體)를 일상삼매로 돈오견성하

爲諸佛菩薩修般若波羅蜜。善男子！初發想信，恒河沙衆生修行伏忍，於三寶中生習種性十心：信心、精進心、念心、慧心、定心、施心、戒心、護心、願心、迴向心。是爲菩薩能少分化衆生，已超過二乘一切善地。一切諸佛菩薩長養十心爲聖胎也。次第起乾慧性種性有十心，所謂四意止，身受心法，不淨、苦、無常、無我也；三意止；三善根，慈、施、慧也。三意止，所謂三世，過去因忍、現在因果忍、未來果忍。是菩薩亦能化一切衆生，已能過我人知見衆生等想，及外道倒想所不能壞。復有十道種性地，所謂觀心識想受行，得戒忍、知見忍、定忍、慧忍、解脫忍；觀三界因果，空忍、無願忍、無想忍；觀二諦虛實，一切法無常，名無常忍；一切法空，得無生忍。是菩薩十堅心作轉輪王，亦能化四天下，生一切衆生善根。又信忍菩薩所謂善達明，中行者斷三界色煩惱縛，能化百佛千佛萬佛國中，現百身千身萬身，神通無量功德，常以十五心爲首：四攝法、四無量心、四弘願、三解脫門。是菩薩從善地至於薩婆若，以此十五心爲一切行根本種子。又順忍菩薩所謂見勝現法，能斷三界心等煩惱縛故，現一身於十方佛國中無量不可說神通化衆生。又無生忍菩薩所謂遠不動觀慧，亦斷三界心色等煩惱習故，現不可說不可說功德神通。復次，寂滅忍，佛與菩薩同用此忍入金剛三昧。下忍中行名爲菩薩，上忍中行名爲薩婆若，共觀第一義諦，斷三界心習，無明盡相爲金剛，盡相無相爲薩婆若，超度世諦第一義諦之外，爲第十一地薩婆若。覺非有非無，湛然清淨，常住不變，同眞際，等法性，無緣大悲，教化一切衆生，乘薩婆若乘來化三界”

21) 一行 撰, 『大日經疏指心鈔』 卷15(國圖善本(D) 18, pp.545, 중-546, 상) 참조.

22) 청화대종사,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9, pp.72-73 참조.

23) 청화대종사, 『실상염불선』, 광륜출판사, 2012, pp.348-349 참조.



고 일행삼매로 실증한 관이염지(觀而念之)의 수행을 통해서 단지 1개월 만에 선수후오(先修後悟)를 체험한 이후 『금강심론』의 제1편 「일인전(一人轉)에 일인도(一人度)」의 제1장 『반야바라밀다심경』을 독특하게 해독한 서문과 말구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금타와 청화가 명시한 수행체계를 재검토해서 선오후수(先悟後修)에 대해서 밝혀 보기로 한다.

### 3. 『금강심론』의 선오후수(先悟後修)

금타의 유고인 『금강심론』의 구성내용은 각주1)에서 밝혔지만, 그 내용의 구성은 매우 치밀하고 정밀하며, 불교의 공통적인 수행체계인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사만(四滿)에 입각하여 정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제1편에서는 믿음과 믿음의 목적, 그리고 믿을 대상의 이해를 통해서 수행자가 나아갈 도정을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제2편에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를 밝히고, 이 수행체계에 대한 교상(敎相)에 대해서 제3편에서 구체적으로 경론을 인용해서 입증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선오후수(先悟後修)의 전거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심경(心經)은 본사(本師) 석가모니불께서 사리자에게 하신 수도법문(修道法門)이니라.…… 여실(如實)히 신만(信滿)<sup>24)</sup>으로써 법(法)에 주(住)해야 여실히 이해[解]의 해만(解滿)으로써 실행하고 여실수행(如實修行)의 행만(行滿)으로써 실증(實證)하되 신증심오(身證<sup>25)</sup>心悟)의 증만(證滿)으로 성불할진

24) 四滿成佛은 信滿·解滿·行滿·證滿성불을 말한다. ① 신만성불은 10信의 滿位 곧 최상위에서 만법이 불생불멸하고 청정하고 평등함을 믿어 구할 것이 없는 것이고, ② 해만성불은 10住의 滿位에서 깊이 모든 법의 체성인 진여를 깨달아 생사·열반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두려운 마음과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③ 行滿成佛은 초지에서 等覺位까지 무명 번뇌가 모두 끊어져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것과 수행이 완성되는 것이고, ④ 증만성불은 妙覺位에서 불가사의한 佛果를 얻는 것이다.

25) 身證은 27賢聖 가운데 하나다. 聲聞四果 第三의 不還果 성자로서 滅盡定에 들어

저.…… 대개 명심(明心)해서 견성(見性)<sup>26)</sup>이요, 견성(見性)해서 오도(悟道) 일세, 선수후오(先修後悟)란 미수(迷修)요, 선오후수(先悟後修)란 수(修)는 오수(悟修)니, 수법(修法)에 있어 강경(講經)이나 송주(誦呪)나 참선(參禪)이나 관법(觀法)이나 그의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오(迷悟)의 경(境)은 일야(一也)요, 증(證)이란 신증(身證)이며, 오(悟)란 심오(心悟)일세, 신증심오(身證心悟)를 증오(證悟)<sup>27)</sup>라 운(云)하나니라.<sup>28)</sup>

이상에서 금타는 수행방편은 다양하지만 믿음의 원만과 이해의 원만, 수행의 원만, 증득의 원만한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사만성불(四滿成佛)을 밝히면서 몸으로 증득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신증심오(身證心悟)를 역설하였다. 말하자면 먼저 깨달은 후에 닦는 선오후수(先悟後修)가 미혹한 수행이 아닌 깨달은 수행임을 명시한 것이다. 여기서 선오후수는 돈오점수(頓悟漸修)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타는 『반야심경』의 독해 서분에서 오온(五蘊)을 조건(照見)하여 개공(皆空)한 이치인 색즉시공(色卽是空)과 공즉시색(空卽是色)을 터득한 삼신사지(三身四智)<sup>29)</sup>로 약해

간 수행자다. 이 성자는 無心定에 있으므로 몸으로 寂靜樂을 證得한 不還果과 아라한과의 성자다.

- 26) 見性은 見道로 禪家에서 見性成佛이란 약어로 識心見性과 마찬가지로 자기의心性을 사무쳐 밝히고 제법의 실상인 當體와 일치하는 正覺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정도의 見佛과 같음.
- 27) 解悟는 체험이 결여된 것이고, 證悟는 올바른 지혜로써 직접 진리를 체험하여 증득하여 깨닫는 것을 말한다. 해오는 간해지로써 아직 실천체험의 물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증오는 깨달음의 물이 풍부한 것을 말한다.
- 28)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p.46-57 참조.
- 29) 實相, 觀照, 文字의 三種般若를 통해서 五蘊皆空을 체득한 三身은 그 성질상 셋으로 나눈다. 즉, 유식에서는 자성신과 수용신, 응화신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수용신은 자수용신과 타수용신으로 나누고, 자수용신은 法身이고, 타수용신은 報身과 응화신인 應身과 化身이다. ①법신은 불변한 만유의 본체로 진리에 인격적 의의를 붙인 무형상의 法身理佛이다. ②보신의 因에 따라서 나타난 불신의 아미타불과 같다. 곧 보살위의 난행과 고행의 결과 영구적인 有形의 불신이다. ③응신은 보신불을 친견하지 못하는 이를 제도하기 위해 나타난 화신은 역사적 존재인 석가모니불로 化身事佛이다. 四智는 ① 제8의 아뢰야식을 전환한 대원경지, ② 제7의 말라식을 전환한 평등성지, ③ 제6의 의식을 전환한 묘관찰지, ④ 제5의 전오식을 전환한 성소작지이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자인 청화가 이러한 선오후수인 돈오점수에 대한 수행체계를 논서에 밀교10지와 심우도를 첨가하여 재정리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스승의 이론을 근간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화는 금타가 명시한 여러 대승경론에서 언급한 보살의 십지(十地)를 근간으로 『화엄경』의 41계위와 『보리심론』의 오상성신(五相成身),<sup>30)</sup> 『대승동성경』의 삼승의 십지(十地),<sup>31)</sup> 『수릉엄삼매경』의 보살십지(菩薩十地),<sup>32)</sup>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의 오인십삼관(五忍十三觀), 『유가사지론』의 십칠지(十七地),<sup>33)</sup> 『마하지관』과 『천태사교의』의 육즉(六卽) 등에서 말하

30) 不空 譯,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大正藏32, p.574, 중), “凡修習瑜伽觀行人。當須具修三密行。證悟五相成身義也。所言三密者。一身密者。如結契印召請聖衆是也。二語密者。如密誦眞言文句了了分明。無謬談也。三意密者。如住瑜伽相應白淨月圓觀菩提心。次明五相成身者。一是通達心。二是菩提心。三是金剛心。四是金剛身。五是證無上菩提獲金剛堅固身也。然此五相具備方成本尊身也。其圓明則普賢身也。亦是普賢心也。與十方諸佛同之。亦乃三世修行證有前後。及達悟也無去來今。凡人心如合蓮華。佛心如滿月。此觀若成。十方國土。若淨若穢。六道含識。三乘行位。及三世國土成壞。衆生業差別。菩薩因地行相。三世諸佛。悉於中現證本尊身。滿足普賢一切行願故”

31) 闍那耶舍 譯, 『大乘同性經』(大正藏16, p.650, 상), “佛言 善丈夫! 聲聞之地凡有十種。何等爲十? 一者受三歸地, 二者信地, 三者信法地, 四者內凡夫地, 五者學信戒地, 六者八人地, 七者須陀洹地, 八者斯陀含地, 九者阿那含地, 十者阿羅漢地。善丈夫! 是名十種聲聞之地……佛言 善丈夫! 辟支佛地有其十種。何等爲十? 一者昔行具足地, 二者自覺甚深十二因緣地, 三者覺了四聖諦地, 四者甚深利智地, 五者八聖道地, 六者覺了法界虛空界衆生界地, 七者證寂滅地, 八者六通地, 九者徹祕密地, 十者習氣漸薄地。善丈夫! 是名十種辟支佛地……佛言 善丈夫! 菩薩諸地有其十種。何等爲十? 一者歡喜地, 二者離垢地, 三者明地, 四者焰慧地, 五者難勝地, 六者現前地, 七者遠行地, 八者不動地, 九者善慧地, 十者法雲地。善丈夫! 是名菩薩十種諸地”

32) 鳩摩羅什 譯, 『佛說首楞嚴三昧經』(大正藏15, pp.631, 상-하) “爾時如來還攝神力, 諸佛及座皆不復現, 一切衆會唯見一佛。爾時佛告堅意菩薩: 「首楞嚴三昧, 非初地、二地、三地、四地、五地、六地、七地、八地、九地菩薩之所能得, 唯有住在十地菩薩, 乃能得是首楞嚴三昧。何等是首楞嚴三昧? 謂修治心猶如虛空(一)……堅意! 首楞嚴三昧如是無量, 悉能示佛一切神力, 無量衆生皆得饒益。堅意! 首楞嚴三昧, 不以一事一緣一義可知, 一切禪定解脫三昧, 神通如意無礙智慧, 皆攝在首楞嚴中”

33) 玄奘 譯, 『瑜伽師地論』「本地分中五識身相應地」卷一(大正藏30, p.279, 상) “云何瑜

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이다. 이에 대해서 『금강심론』을 근간으로 『원통불법의 요체』에서 재구성한 수행의 위치를 도표로 나타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경론의 수행위차(修行位次)<sup>34)</sup>

출처	수행의 위치	
華嚴經	a	菩薩乘十地; 歡喜地~法雲地
唯識論	b	十波羅密
首楞嚴經	c	五十六位; 信, 住, 行, 廻向, 四加行, 地, 등각, 묘각 四滿成佛; 信滿, 解滿, 行滿, 證滿
金剛心論	d	解脫十六地; 三歸地~無餘地
仁王經	e	五忍과 十四忍, 十三觀門
智度論	f	四得定, 九次第定, 五陰의 滅盡
瑜伽論	g	瑜伽十七地; 五識身相應地~無餘依地
智度論	h	三乘共十地 <sup>35)</sup>
大乘同性經	i	聲聞乘十地 <sup>36)</sup>
大乘同性經	j	緣覺乘十地 <sup>37)</sup>
菩提心論	k	五相成身位 <sup>38)</sup>
唯識論	l	唯識五位; 資糧位, 加行位, 通達位, 修習位, 究竟位
摩訶止觀	m	六卽; 理卽, 名字卽, 觀行卽, 相似卽, 分眞卽, 究竟卽
俱舍論	n	四道; 加行道, 無間道, 解脫道, 勝進道
秘藏寶論	g	十住心
廓庵十牛圖	w	十牛圖 <sup>39)</sup>

참고: ① a, d, e를 배대(配對)의 근간으로 하였음. ②각 경론의 배대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배대란 어려움. ③ 점수(漸修), 돈오(頓悟)의 근기여부에 따라 차제를 밟아가는 차제 점수(漸修) 또는 몇 단계씩 뛰어 증오(證悟)하는 간초(間超), 그리고 단번에 구경각(究竟覺)을 성취하는 돈수(頓修)의 돈초(頓超)가 있음. ④ 동일한 말로서 배대가 일치

伽師地。爲十七地。何等十七。嚙拞南曰。五識相應意 有尋伺等三 三摩地俱非 有心無心地 聞思修所立 如是具三乘 有依及無依 是名十七地。一者五識身相應地。二者意地。三者有尋有伺地。四者無尋唯伺地。五者無尋無伺地。六者三摩四多地。七者非三摩四多地。八者有心地。九者無心地。十者聞所成地。十一者思所成地。十二者修所成地。十三者聲聞地。十四者獨覺地。十五者菩薩地。十六者有餘依地。十七者無餘依地。如是略說十七。名爲瑜伽師地”

34) 청화대종사,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9, pp.598-599 참조.

하지 않는 경우는 논자에 따라 주장과 의의(意義)를 달리하기 때문임. ⑤ c에 있어서 등각(等覺)이 보살의 극위(極位)를 의미하여 이를 별도로 나타낼 때는 56위가 되고 등각이 제위의 수분각(隨分覺)이 될 때는 이를 감하여 55위가 됨. ⑥ m의 이즉(理卽)이란 일체중생의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으로서 본래 망념(妄念)을 여윈 각체(覺體)를 의미하므로 수행의 차례와 계위가 아님.

여기에서 청화는 해탈16지에 『대지도론』의 삼승공십지(三乘共十地)와 구차제정(九次第定)을 비롯하여 『비장보약』의 십주심(十住心),<sup>40)</sup> 그 계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선가의 파악지원이 참선의 과정을 그려낸 10단계로 깨달아가는 과정의 심우도서(心牛圖序)를 덧붙였다. 그리고 『보살영락본업경』<sup>41)</sup>의 41계위 또는 42계위나 51계위, 52계위, 53계위, 55계위, 『능엄경』<sup>42)</sup>의 56계위나 57계위 등이라고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화경』

35) 1.幹慧地, 2.性地, 3.八人地, 4.見地, 5.三薄地, 6.離欲地, 7.已辦地(아라한과), 八.支佛地, 9.菩薩地, 10.佛地

36) 1.修三歸地, 2.信地, 3.信法地, 4.內凡夫地(五停心觀과 四念處觀,) 5.學信戒地, 6.八人地, 성문견도위, 7.수다원지(예류과), 8.사다함지(일래과), 9.아나함지(불환과), 10.아라한지 등.

37) 1.苦行具足地, 2.自覺甚深十二因緣地, 3.覺了四聖諦地, 4.甚深利智地無相地生, 5.八聖道地, 6.覺了法界處空界衆生界地, 7.證寂滅地六通地初, 8.六通地, 9.徹和蜜地無學果證, 10.習氣漸薄地

38) 通達菩提心位, 修菩提心位, 成金剛心位, 成金剛身位, 佛身圓滿位

39) 1.尋牛, 2.見跡, 3.見牛. 4.得牛, 5.牧牛, 6.騎牛歸家, 7.忘牛存人, 8.人牛俱忘, 9.返本還源, 10.入塵垂手

40) 遍照金剛 撰, 『秘藏寶鑰』 卷上(大正藏77, p.363, 중-하) “第一異生羝羊心 凡夫狂醉不悟吾非 但念姪食 如彼羝羊. 第二愚童持齋心 由外因緣 忽思節食 施心萌動 如穀遇緣. 第三嬰童無畏心 外道生天 暫得蘇息 如彼嬰兒 犢子隨母. 第四唯藏無我心 唯解法有 我人皆遮 羊車三藏 悉攝此句. 第五拔業因種心 修身十二 無明拔種 業生已除 無言得果. 第六他緣大乘心 無緣起悲 大悲初發 幻影觀心 唯識遮境. 第七覺心不生心 八不絕戲 一念觀空 心原空寂 無相安樂. 第八如實一道心 一如本淨 境智俱融 知此心性 號曰遮那. 第九極無自性心 水無自性 遇風即波 法界非極 蒙警忽進. 第十祕藥莊嚴心 顯樂拂塵 眞言開庫 祕寶忽陳 萬德即證.”

41) 竺佛念 譯,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24, p.1011, 중), “佛言 佛子! 欲成斯道當先正三業、習三寶教、信向因果。然卽所問, 悉可得入一切佛教, 爲菩薩者得佛不久。必諦受學四十二賢聖名門決定了義, 十方三世一切諸佛皆共同說一而無二…”

42) 般刺蜜帝 譯,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十(大正藏19, p.154, 중), “識陰若盡, 則汝現前諸根互用, 從互用中能入菩薩金剛乾慧, 圓明精心於中發

에서는 붓다의 지견을 열어 보여 깨달아 들어가[開示悟入]게 하려고 설하였으며, 『성유식론』과 『보살지지경』에서는 4위와 13주 또는 7지로 체계화시켰다. 이러한 수행체계의 분기점은 바로 보살 십지(十地)의 단계로 인간 의식의 대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수증론은 바로 인간의 역량과 성향·육구와 맞물려 다양해졌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자면 해탈하는 16가지 경지는, 먼저 삼보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원력으로 장통별원(藏通別圓)의 사종사제(四種四諦)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정념정지(正念正智)로 회통한 것이다. 다음에 오인(五忍)을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체득하도록 제시하였다. 나아가 가행위의 사득정(四得定)을 수행해서 오상성신위(五相成身位)와 공통의 십지(十地), 오온(五蘊)에 배대시킨 것이다. 근본불교의 구차제정을 비롯하여 사쌍팔배(四雙八輩)와 더불어 밀교의 계위와 오안(五眼)을 안배시킨 금강살타인 보현보살의 경계를 체득하도록 관계시킨 것이다.<sup>43)</sup>

이처럼 청화는 스승의 수행체계를 선종의 수행체계까지 연계시켜 부파불교의 구차제정(九次第定), 유식불교의 가행위(加行位), 유가사지(瑜伽師地)인 17계위, 삼승에 공통하는 십지(十地), 성문과 연각, 보살, 밀교 각각의 십지(十地)를 총괄하여 각자의 근기에 적절한 수행을 통해서 오상성신(五相成身)과 오안(五眼), 육신통(六神通) 등을 체득하는 이러한 수행체계는 간략히 말하면 대승과 소승, 현교와 밀교, 권교와 실교, 교종과 선종을 종합한 독특한 수행체계를 명시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수행체계에서 어떤 깨달음의 단계가 선오(先悟)이고, 어느 닦음이 후수(後修)일 것인가? 주지하듯이 인도불교의 수행체계는 선

化, 如淨瑠璃內含寶月, 如是乃超十信、十住、十行、十迴向、四加行心、菩薩所行金剛十地、等覺圓明, 入於如來妙莊嚴海, 圓滿菩提歸無所得”

43) 九次第定을 통해서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 수행하는 목적으로 해탈의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차차 얻어 열반에 안주한다. 이른바 三解脫과 八解脫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시열,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도서출판 우주사, 2014, pp.47-94 참조. 여기서 금타와 청화는 五字成身 또는 五字嚴身 a(地), va(水), ra(火), ha(風), kha(空)과 연계시켜 논하였다.

수후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물론 부처님께서 명시한 내용에서 선오후수도 유추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금타가 명시한 내용에서도 얼핏 보면 선수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금타가 주목한 “55위설과 삼현육성설(三賢六聖說)’을 지지하는 동시에 55위를 점차 차례로 ‘점수하는 설을 타파’하고 안으로 50위에서 오위(五位)를 열 번 거듭하고, 또 십위(十位)의 오중(五重)을 중형으로 관찰하여 ‘오온개공(五蘊皆空)을 증득하는 경지’로서 곧 ‘오지여래(五智如來)<sup>44)</sup>를 성취’하는 방편<sup>45)</sup>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여기서 선오후수를 돈오점수에 결부시켜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4. 『금강심론』의 돈오점수(頓悟漸修)

청화는 『원통불법의 요체』<sup>46)</sup>와 『실상염불선』<sup>47)</sup>에서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비롯하여 깨달음에 대한 해오(解悟)와 증오(證悟)의 개념과 더불어 견도(見道)와 견성(見性)의 의미까지 피력하였다. 특히 일물(一物)에 대해서 남악회향과 육조혜능의 전거를 들어서 무염오수행(無染汚修行)을 강조한다. 나아가 『육조단경』과 『보조수심결』<sup>48)</sup>에 입

44)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p.62-65 참조.

45)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150 참조.

46) 청화대중사,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9, pp.30-75.

47) 청화대중사, 『실상염불선』, 광륜출판사, 2012, pp.316-350.

48) 『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大正藏48, p.1007, 중-하), “問：既悟此理，更無階級，何復後修，漸熏漸成耶？答：悟後漸修之義，前已具說，而復疑情未釋，不妨重說。汝須淨心，諦聽諦聽。凡夫無始曠大劫來，至於今日，流轉五道，生來死去，堅執我相，妄想顛倒，無明種習，久與成性，雖到今生，頓悟自性本來空寂，與佛無殊，而此舊習，卒難除斷。故逢逆順境，曠喜是非，熾然起滅，客塵煩惱，與前無異。若不以般若中功著力，焉能對治無明，得到大休大歇之地？如云：頓悟雖同佛，多生習氣深；風停波尚湧，理現念猶侵。又呆禪師云：往往利根之輩，不費多力打發此事，便生容易之心，更不修治，日日月深，依前流浪，未免輪迴。則豈可以一期所悟，便撥置後修耶！故悟後長須照察，妄念忽起，都不隨之；損之又損，以至無爲，方始究竟。天下善知識，悟後牧牛行是也。雖有後修，已先頓悟妄念本空，心性本淨，於惡斷，斷而無斷；於善修，修而無修，此乃真修真斷矣。故云：雖備修萬行，唯以無念爲宗。

각해서 돈점의 원류를 고증하여 돈오돈수를 인정하면서 돈오점수도 역시 인정하였다고 입증하였다.

또한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해서 청화는 청량징관(738~839)과 규봉종밀(780~841) 및 보조지눌(1158~1210) 등의 조사들이 인정한 이론임을 정영사 해원(523~592)의 『대승의장』과 『선원제전집도서』, 『보조수심결』, 『선관책진』 등을 인용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시절인연에 따른 수기설법(隨機說法)에 대한 수증이론이기 때문에 비판할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청화는 돈오돈수든 돈오점수든 간에 무염수(無染修)인 오염이 없는 수행으로 선오후수가 되어야 진정한 수행이 됨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육도단경』과 『보리방편문』에서 언급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의 관이염지(觀而念之)에 대해서도 설법하면서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체득하는 불조의 공통된 정통과 전통임을 천명한다. 그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깨달음과 돈오점수<sup>49)</sup>

悟	解悟	四善根位에서 여실하게 知解를 頓悟는 似悟			범부위
	證悟	見道	見性	보살 초환회지	성자위
		修道	제2지~제10지 차례로 닦아 증득함		
	無學道	묘각妙覺			
修	頓悟	解悟 이후 證悟를 위한 漸修; 일상삼매			
	漸修	證悟; 見道 또는 이후 성불을 위한 漸修; 일행삼매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금타의 법통을 이은 청화는 응병여약(應病與藥)한 시간과 공간의 시절인연에 부합한 수기설법을 통해서

圭峯總判先悟後修之義云：頓悟此性，元無煩惱；無漏智性，本自具足，與佛無殊。依此而修者，是名最上乘禪，亦名如來清淨禪也。若能念念修習，自然漸得百千三昧。達磨門下轉展相傳者，是此禪也。則頓悟漸修之義，如車二輪，闕一不可”

49) 청화대종사,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9, pp.30-75 참조.



오염이 없는 본래 청정한 마음을 체득하는 돈오점수의 수행체계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중국불교에서 청량정관(淸涼澄觀)과 하택신회(荷澤神會)를 거쳐서 규봉종밀(圭峰宗密)과 영명연수(永明延壽)에게 이어졌고, 한국불교에서도 고려의 보조지눌(普照知訥)과 조선의 청허휴정(淸虛休靜)과 백파공선(白坡巨璇) 등의 조사로 면면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퇴옹성철(退翁性徹, 1912~1993)이 종밀과 보조의 돈오점수와 원돈신해는 교(敎)이고 돈오돈수만이 선(禪)이라고 비판하고 주창하면서 야기된 돈점문제는 한 때에 학자들 간에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어느 정도 학술적인 공헌을 하였지만, 어쩌면 부질없는 주의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신론』이나 『보조수심결』, 『능엄경』 등에서 불도를 닦음에 이치로는 단박에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과거의 습기를 단박에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점차로 습기를 제거해 나아가는 전환의 과정이 합당한 수증이라고<sup>50)</sup> 청화는 돈오점수에 중점을 두어 결론짓는다. 그리고 『육조단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최상승의 최상근자를 위해 돈오돈수(頓悟頓修)로 지도하였지만, 중하의 근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육조 역시 홍인로부터 인가를 받고나서 무려 16년의 보림(保任)수행의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진리[法]에는 진여불성의 자성이 일미평등(一味平等)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근욕성(根欲性)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주장은 시비분별일 뿐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도(道)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말로 전할 수 없다. 하지만 본래 청정한 마음과 마음이 계합한 경지에서 직지인심(直指人心)을 식심견성(識心見性)해서 이심전심(以心傳心)한다고 말한다.

하여튼 금타가 제3편 제13장 보살승의 수행단계에서 언급한 여러 경전과 논에서 말하는 갖가지가 다름을 ‘삼현육성설(三賢六聖說)’로 언급하였

50) 청화대종사,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9, pp.41-44 참조.

다. 말하자면 『대일경』에서는 십주의 10위 또 10지를 설하였다. 『승천왕반야경』 권3에서는 10지의 10위만을 설하며, 『금광명경』에서는 10지와 묘각의 11위를 설하였다. 『인왕반야경』에서는 10신<sup>51)</sup> · 10주 · 10행 · 10회향 · 10지 · 묘각의 51위를 설한다. 일부의 『화엄경』과 『보살영락경』과 『기신론』 등에는 등각을 첨가하여 52위를 설한다. 『수릉엄경』에는 난(煖) · 정(頂) · 인(忍) · 세제일(世第一)의 사선근을 더하여 56위를 설한다. 이에 대하여 『유식론』에는 10신을 포함한 10주 · 10행 · 10회향 · 10지 · 묘각의 41계위를 설정한다. 『대지도론』에는 이에 등각을 덧붙여 42위를 설하였다. 다시 사각(四覺)과 오온(五蘊)을 첨가하여 수행의 관계를 다시 도표하면 아래와 같다.

이상의 모든 수행단계에 나아가서 범부와 성인에 대해서 금타는 『대일경(大日經)』에서 설정한 10위 가운데 처음 3위는 범부위이다. 뒤 7위는 현인과 성자의 계위다. 『승천왕반야경』<sup>52)</sup>의 10위와 『금광명경』의 11위는 모두 다 성자의 계위이다. 『지도론』에서 설명한 10위 가운데 처음 2위는 범부위이다. 뒤 8위는 현자와 성자의 계위이며, 『유식론』에서 설명한 41위 가운데 십신을 포함한 10주와 10행 · 10회향의 30계위는 현자의 계위이고, 10지와 묘각은 성자의 계위다.

51) 十信은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 52위 가운데 처음의 10위다.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 의심이 없는 지위다. 그 내용은 信心과 念心, 精進心, 慧心, 定心, 不退心, 護法心, 廻向心, 戒心, 願心 등.

52) 普月婆首那 譯, 『勝天王般若波羅蜜經』 권3(大正藏8, p.705, 중-하), “大王! 菩薩摩訶薩行般若波羅蜜, 如是方便善巧教化, 速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以故? 菩薩摩訶薩, 行檀具足, 持戒清淨——無穿、缺、雜, 戒聚清淨, 過諸聲聞、辟支佛境——具足忍辱、精進、禪定、般若、方便、願、力、智, 如來世尊不共功德, 一切具足, 已過聲聞、辟支佛地。大王! 菩薩初地乃至十地, 行般若波羅蜜, 修如是行,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說是法門時, 衆中二萬天子得遠塵離垢法眼淨; 三萬菩薩摩訶薩得無生法忍; 八萬四千人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世尊! 因此般若波羅蜜, 得有人、天, 須陀洹向、須陀洹果, 乃至阿羅漢向、阿羅漢果, 辟支佛道, 菩薩十地、十波羅蜜, 如來十力、四無所畏、十八不共法、一切種智, 皆從般若波羅蜜中出”

## 4) 해탈16지와 제교의 수행계위

菩薩十地	五忍 (十四忍) 十三觀門	四善根, 次第定 五相成身位	解脫 十六地	三乘 共十地	瑜伽十七地	覺	五陰	
십신	내범위	오정심, 별상념주, 총상념주			오식신상응지	不覺		
십주	伏忍	하 習忍	오취잡거지 명득정=	삼귀지	간혜지	유심유사지 무심유사지 무심무사지 삼마회다지 비삼마회다지	相似覺	
십행		중 性忍	통달보리심 명증정=수보리심	신원지 습인지				
십회향		상 道種忍	인순정=성금강심 무간정=성금강신 空性體得	가행지 금강지				
환회지	信忍	하	해탈도=불신원만 이생회락지 정생회묘락지	회락지	성지	유심지	始覺	색 수
이구지		중		이구지	괄인지	무심지		
발광지		상		정진지	견지	문소성지		
엄혜지	順忍	하	이회묘락지 사념청정지	선정지	박지	사소성지	隨分覺	상
난승지		중		현전지	이욕지	수소성지		
현전지		상		나한지	이판지	성문지		
원행지	無生忍	하	공무변처지 식무변처지	지불지	지불지	독각지	행	
부동지		중		보살지	보살지	보살지		
선혜지		상		무소유처지	보살지	보살지		보살지
범운지	寂滅忍	하	비상비비상처지	유여지		유여의지	식	
묘각	忍	상	멸수상정= 금강유정	무여지	불지	무여의지	구경각	

이상은 곧 천태종교와 화엄별교의 대승계위에 일치하지만, 만일 두 종파를 원교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단계에 의거하면 모두 다 삼승이 깨달음을 얻는 계위이다. 또 『지도론』에서 설명한 42계위도 이에 기준하여 짐작할 수 있다. 『화엄경』과 『보살영락경』 등의 52위 가운데 처음 10신은 외범부의 계위이다. 10주·10행·10회향 30위는 별교와 종교에서는 내범부인 현자의 계위이다. 원교에서는 성자의 계위이며, 10지·등각·묘각의 12위는 권교와 실교, 돈교와 점교는 모두 원교에서 성자의 계

위이기 때문에 56위도 이에 기준하여 알아야할 것<sup>53)</sup>이라고 논하였다. 이처럼 금타가 강조한 ‘삼현육성(三賢六聖)의 중복’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56위(位) 사만성불(四滿成佛)<sup>54)</sup>

等覺	煖位	頂位	忍位	世第一位	四加行	相似覺	始覺	內凡夫位	相	眞空妙有
	初信	初住	初行	初地	初廻向	隨分覺		三賢位		
	二信	二住	二行	二地	二廻向			入聖位		
	三信	三住	三行	三地	三廻向			六聖位		
	四信	四住	四行	四地	四廻向					
	五信	五住	五行	五地	五廻向					
	六信	六住	六行	六地	六廻向					
	七信	七住	七行	七地	七廻向					
	八信	八住	八行	八地	八廻向					
	九信	九住	九行	九地	九廻向					
	十信	十住	十行	十地	十廻向					
信滿	解滿	行滿	證滿	妙覺	究竟覺	佛位	性	空		

이상의 내용은 금타의 독특한 돈점수행관이다. 말하자면 등각과 진공묘유(眞空妙有)로 여러 수행체계를 회통하였다. 즉, 돈오(頓悟)한 이후에 55계위인 10신과 10주<sup>55)</sup> · 10행<sup>56)</sup> · 10지 · 10회향<sup>57)</sup>의 십중(十重)과 신

53)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p.279-280 참조.  
 54)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281.  
 55) 十住는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인 52위 중 제11위에서 제20위까지이다. 10信位를 체득하고 나서 마음이 眞諦의 이치에 안주하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發心住와 治地住, 修行住, 生貴住, 具足方便住, 不退住, 童眞住, 法王子住, 灌頂住 등.  
 56) 十行은 보살이 수행하는 52단계 중 제21위에서 제30위까지로 자리타를 수행하는 계위다. 歡喜行과 饒益行, 無瞋恨行, 無盡行, 離癡亂行, 善現行, 無着行, 尊重行, 善法行, 眞實行 등.  
 57) 十廻向은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인 52위 중에서 제31위에서 제40위까지. 10行位를 마치고 다시 지금까지 닦은 自利利他的 여러 가지 행을 일체 중생을 위하여 돌려주는 동시에 이 공덕으로 불과를 향해 나아가 깨달음의 경계에 도달하는 지위다. 救護一切衆生離衆生相廻向과 不壞廻向, 等一切諸佛廻向, 至一切處廻向, 無盡

(信)·주(住)·행(行)·지(地)·회향(廻向)의 오중(五重)을 종횡으로 교차한 하나의 범부계위와 셋의 현위, 하나의 입성위, 여섯의 성위로 점수(漸修)하게 하였다. 요컨대 모든 설명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곧 깨달음과 수행에서 먼저 깨닫고 나중에 깨닫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다음에 사만(四滿)을 참작하여 먼저 수행하고 나중에 깨닫는 것은 원인이 원만하면 결과도 원만하다는 인원과만(因圓果滿)을 드러내고자 적시하였다.

또한 본각(本覺)에서 불각(不覺)이었다가 깨달음의 4단계에서 범부인 십신(十信)의 불각(不覺)에서 시각(始覺)과 삼현위의 상사각(相似覺)인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의 내범부의 시각으로부터 십지(十地)의 성자위인 수분각(隨分覺)을 거쳐서 구경각(究竟覺)에 다다른다. 그리고 보니 각각의 시각과 구경각이 본각에 계합하여<sup>58)</sup> 사중열반에 안주하는 과정을 제교의 수행계위에 배당하고 대비시켜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십회향을 10지의 뒤로 바꾸어 위치시킨 것은 인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sup>59)</sup> 논하였다. 이는 사가행인 삼현위의 해오(解悟)로 견도(見道)이자 견성(見性) 또는 선오(先悟)인 돈오(頓悟)이고, 십지의 성자위인 수도(修道)는 후수(後修)인 점수(漸修)이다. 왜냐하면 진여(眞如)는 바로 변함없이 인연을 따르는 불변수연(不變隨緣)이자 인연을 다르면서도 변하지 않는 수연불변(隨緣不變)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각(不覺)인 무명(無明)을 제거하는 과정은 십팔계(十八界)에서 일어나는 지말무명을 제거하면서 오온개공(五蘊皆空)의 근본무명을 제거함에 있다.

여기서 금타는 정통에 입각한 수계체계를 수렴하면서도 등각(等覺)과 진공묘유(眞空妙有)로 회통하여 사만성불(四滿成佛)함은 사가행에서 단번

---

功德藏廻向，入一切平等善根廻向，等隨順一切衆生廻向，眞如相廻向，無縛無着解脫廻向，入法界無量廻向 등.

58) 김시열,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도서출판 운주사, 2014, pp.169-175에서 박태원은 「'깨달아 감'과 '깨달음', '깨달아 마침'」에 대해서 『기신론』과 『금강삼매경론』을 전거로 四覺과 52계위를 접목시켜 논하고 또 연기적 사유의 관점에서 실체와 본질을 해체하는 과정을 논하였다.

59)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p.280-282 참조.

에 깨달아[頓悟] 마치는가 하면, 오중(五重)과 십중(十重)을 중첩으로 닦는[漸修] 수행체계를 초월하여 타과한 금타의 의도가 드러남을 짐작하게 한다. 그래서 금타는 정통에서는 모든 수행체계를 회통하여 선오후수(先悟後修)하였지만, 여래선과 조사선<sup>60)</sup>에서 단번에 초월하는 수행체계의 전통도 간과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중국의 조사선<sup>61)</sup>에서 최종적으로 체증할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본래성불을 전제하고, 공성상(空性相)의 삼종(三宗)을 총괄한 수증의 방법에서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하는 조사선법에 부합한 정통이자 전통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동서고금에 근기(根機)와 시기(時機)가 상응하면 돈점(頓漸)에 따라서 해오(解悟)하고서 점수(漸修)를 통해서 증오(證悟)를 체득하여 단박에 또는 점차로 신증심오(身證心悟)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간화수행방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대신심(大信心)과 대분심(大憤心), 그리고 대의심(大疑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대신심은 제법이 공한 본래 청정한 진여불성의 본래성불을 믿는 것이다. 다음에 대분심은 본질에서 벗어나 조사와 똑같은 존재인데 나태하고 오염된 자기를 반성하여 반드시 성불하겠다고 단오하게 결심함을 말한다. 대의심은 나의 본래면목과 진여불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각대혜는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또는 『서장(書狀)』에서 참선의 수행체계에 대해서 이르기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길이 일체 선한 법을 기른다.”고 하셨다. 또 이르시길,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더하여 자라게 하고 믿음은 능히 여래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다. 천 리를 가고자 하면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60) 청화대종사 저, 『원통불법의 요체』, 광문출판사, 2009, pp.76-98 참조.

61) 김호귀는 「선종의 깨달음과 그 유형」,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도서출판 운주사, 2014, pp.95-159를 참조하면 제1의 깨달음인 실상반야와 제2의 깨달음인 관조반야, 제3의 깨달음인 문자반야를 『금강경』을 비롯한 여러 전거를 들어 조사선법의 역사적 입장에서 논하였다.

법을 증득하는 것도 처음에는 십신(十信)으로부터 들어간 뒤에 법운지(法雲地)에 올라 정각을 이루게 되었다. 처음 환희지(歡喜地)도 믿음을 인하여 환희심을 낸 연고이다.<sup>62)</sup>

라고 대혜는 교학의 수행체계를 들어서 질문자에게 답하였다.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근기의 이론은 의혹의 불신(不信)을 제거하여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불교의 역사를 장식하여왔다. 말하자면 시공간의 대상에 따라서 끊임없는 대기설법이 창안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금타와 청화가 주장한 선오후수(先悟後修)는 55위의 삼현육성설(三賢六聖說)을 통해서 오온개공(五蘊皆空)의 삼신사지(三身四智)와 사만성불(四滿成佛)의 오지여래를 체득하도록 명시하였다. 수행자는 이러한 수행체계를 근간으로 실수실증(實修實證)을 통해서 선오후수(先悟後修)한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지남으로 삼아 수행해야 하겠다. 그래서 수행자는 본래 청정한 마음의 본래성불을 알아차리고 믿어 오염이 없는 수행인 무염오수행(無染汚修行)을 통해서 감응도교(感應道交)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성재작용(性在作用)이다.

### III.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금강심론』에 드러난 선오후수의 돈점론’이란 논제 하에 금타의 선오후수(先悟後修)의 수행론을 논하였다. 불교의 수증은 수행자가 실천하고 체증하여 해탈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서 도달해야할 수행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동반한다. 때문에 근기론을 수반한 수증론은 불자라면 누구나 교학을 바탕으로 믿고 이해하여 명기불망(明記不忘)할 내

62) 『大慧普覺禪師書』 卷26 「答許司理 壽源」(大正藏47, 924중), “黃面老子曰。信爲道元功德母。長養一切諸善法。又云。信能增長智功德。信能必到如來地。欲行千里一步爲初。十地菩薩斷障證法門。初從十信而入。然後登法雲地。而成正覺。初歡喜地因信而生歡喜故也”

용이면서 실천적으로 수행 과정을 통하여 체현할 과제이다. 청화가 언급하였듯이 수증의 계차도 모르고 암중모색하거나 일부의 문자에 집착하여 깨달음이란 그런 것이라고 어렵짐작하거나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증상만을 일으키는 자의 경계를 극복하는 핵심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본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먼저 『금강심론』에 드러난 선오후수의 수증론<sup>1)</sup>이란 대주제 하에 제1절에서, 주객상응(主客相應)의 대기설법(對機說法)에 대해서 부처님의 사실단(四悉檀)과 삼정취(三定聚), 오성각별(五性各別) 등의 근기론을 초월한 본각이나 본래성불에 입각한 조사선에서 제자를 지도하는 방식인 사빈주(四賓主)와 사료간(四料揀)에 대해서까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금강심론』의 수증계차(修證階次)<sup>2)</sup>에 대해서는 금타만의 독특한 수행의 체계인 해탈십육지(解脫十六地)에 대해서 그 대강을 검토하였다. 이는 교학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회통시켜서 금타만의 독특한 수행체계를 피력한 선오후수(先悟後修)이다. 이는 교학의 정통을 담보한 선의 전통을 피력한 것이다.

셋째로는 『금강심론』의 선오후수(先悟後修)와 관련해서 『금강심론』을 근간으로 청화의 설법총서인 『정통불법의 요체』와 『실상염불선』에 근거한 여러 수행체계와 여러 경전에 설해진 내용을 배대시킨 선오(先悟)한 이후 후수(後修)하는 내용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이는 금타의 수행체계를 계승한 청화의 수행관이다.

넷째로는 『금강심론』의 돈오점수(頓悟漸修)<sup>3)</sup>는 역시 『정통불법의 요체』와 『실상염불선』에 명시된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깨달음과 닦음의 총합적인 내용을 살폈다. 먼저 청화가 설법하면서 강조한 조사선의 무염오수행(無染汚修行)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에 금타가 제시한 수행체계에 다시 사각(四覺)과 오온(五蘊)을 첨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나서 금타가 주목한 ‘제교를 회통한 수행체계를 타파’하는 55위의 ‘삼현육성설(三賢六聖說)’을 오중(五重)과 십중(十重)으로 사만성불(四滿成佛)하는 인원과만



(因圓果滿)<sup>63)</sup>을 통해서 오온개공(五蘊皆空)한 오지여래의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체득하는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상 금타가 명시한 수행체계는 정통과 전통적 신해행증(信解行證)에 입각한 반야를 본체로 삼고 근본선정을 바탕으로 인원과만(因圓果滿)을 근간으로 제교제행을 회통한 특기할 선오후수(先悟後修)하는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수행체계이다. 본 논문을 끝마침에 청화가 『금강심론』의 「일러두기」<sup>64)</sup>에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간략하면서도 포괄적이다. 말하자면 금타가 제교를 회통함과 아울러 수행체계도 원융하게 회통하여 수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의 제교회통의 이론과 원융한 수행체계를 입증한 정통과 전통을 종합하여 계승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문헌적 입증을 통해서 한국의 회통불교를 지향한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간주된다.

63)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p.59-60 참조.

64) 釋金陀 著·清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pp.26-28 참조.

## 참고문헌

- 鳩摩羅什 譯,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菩薩教化品」(大正藏 8)  
普月婆首那 譯, 『勝天王般若波羅蜜經』 권3(大正藏 8)  
實叉難陀 譯, 『大方廣佛華嚴經』 卷19(大正藏 10)  
曇無讖 譯, 『大般涅槃經』 卷四十(大正藏 12)  
康僧鎧 譯, 『佛說無量壽經』 卷上(大正藏 12)  
鳩摩羅什 譯, 『佛說首楞嚴三昧經』 上卷(大正藏 15)  
般刺蜜帝 譯,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十(大正藏 19)  
竺佛念 譯,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 24)  
玄奘 譯, 『瑜伽師地論』 卷一(大正藏 30)  
不空 譯,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大正藏 32)  
馬鳴菩薩 造·眞諦 譯, 『大乘起信論』(大正藏 32)  
臨濟義玄, 『臨濟語錄』(大正藏 47)  
大慧普覺, 『大慧普覺禪師書』 卷26 「答許司理 壽源」(大正藏 47)  
一行 撰, 『大日經疏指心鈔』 卷15(國圖善本(D) 18)  
遍照金剛 撰, 『秘藏寶鑰』 卷上(大正藏 77)  
清虛休靜, 『禪家龜鑑』(韓佛傳 7)
- 空閑山人 編著, 『碧山禪要』 上卷·下卷, 能顯禪院, 1993  
청화 역주, 『육조단경』, 광륜출판사, 2008.  
釋金陀 著·淸華 編, 『金剛心論』, 광륜출판사, 2009.  
청화대종사,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9.  
\_\_\_\_\_, 『실상염불선』, 광륜출판사, 2012.  
김시열,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도서출판 우주사, 2014.  
배광식 편저, 『금강심론 주해』 I·II, 뜨란, 2017·2018.

## Abstract

Studies of first enlightenment, then practice and the theory of sudden and gradual revealed in 『Gemgangsmlon』

Jung Kwang-gyun(Ven. Bup-sang)  
(Lecturer, Joong-Ang Sangga Univ.)

When we refer to Korean Buddhism as a common Buddhism, it can be a question of whether it is in the practice of teaching and demonstration. In the modern and modern times, the two pioneers who stood in the orthodox and tradition-based performance system are the gumta(1898~1948) and the Chunghwa(1924~2003). The voucher system proposed and described by these two is a practice system that is appreciated and appreciated by practitioners. Buddhist vestiges are the greatest task that the practitioner will put into practice and confer the best value to the practitioner. Therefore, the fundamental root theory and the performance theory are intended to be embodied while everyone is unhappy.

In this paper, I first looked at the Buddhist anthroposophy in terms of the Buddhist ancestor, the Buddhist ancestor, and the Buddhist sermon. We also examined the emancipation chapter of the 『Gemgangsmlon』. Next, I reviewed the number of afternoon spots in 『Gemgangsmlon』, and examined the number of pounds stated in 『jungtongbulbub 'yoche』. Finally,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pounds stated in 『Gemgangsmlon』. The 『jungtongbulbub' yoche』 and 『silsangyembulson』 were linked to the contents of the thesis to examine the survey method which transcends partly.

Key words

Gemgangsilon, Gumta, Chunghwa, the fundamental root theory, the performance theory, Step 16 of liberation, first enlightenment, then practice, at short notice realizing and gradually practice